

# 지구촌 양계뉴스

## 한국 “부케 대신 닭 던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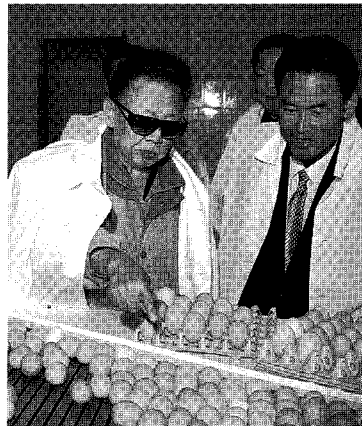
햇살이 따사로웠던 지난 11월 21일 광주 향교에서 전통혼례가 펼쳐졌다.

예식장과 달리 탁트인 공간에서 여유롭게 진행된 이날, 혼례 마지막 순서로 신랑이 하객들을 향해 산 닭을 날렸다. 서양식 결혼식에선 신부가 친구에게 부케를 던지지만, 전통 혼례에선 신랑과 신부 모두 알 잘 낳는 닭 한 마리씩을 던진다. ‘닭황제’를 한 하객은 집에 가져가 키우든, 잡아먹든 맘대로다.

- 광주드림

## 북한 김정일, 평안북도 공장·양계장 현지 지도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북도의 현대화된 공장 기업소와 닭공장(양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지난 11월 1일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압록강계기종합공장과 수풍배아

링공장, 10월 10일 공장, 압록강일용품공장 등을 둘러봤으며, 특히 압록강일용품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 과학화로 제품생산이 늘어난 데 대해 만족을 표시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또 김 위원장이 “현대적인 과학기술에 기초한 생산체계를 확립하여 기계 생산에서 커다란 진전을 이룩했다”며 “특히 CNC기술의 명맥을 확고히 틀어쥔 것은 선군시대의 위대한 승리”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또 평안북도 닭공장을 현지 지도하며 “닭 배설물을 효과적으로 이용, 많은 오리나 돼지를 기르고 있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라며 공장 근로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고 방송은 전했다.

- 뉴스스



## 일본

### 프랑스산 가금류 수입금지

프랑스 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생하자 일본이 지난 11월 18일 프랑스산 닭고기 등 가금류 수입을 중단했다.

교도통신은 일본 농림수산성의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이번 수입금지 조치는 최소 90일간 지속될 예정이며, 금지 품목에는 거위 간 요리인 푸아그라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일본은 올해 2월에도 프랑스 서브 방데지방 오리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통보받은 후 지난 6월까지 프랑스산 가금류 수입을 중단했었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은 조류인플루엔자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사람이 프랑스산 닭고기를 먹는다고 해도 질병이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은 없다고 강조했다.

- 도쿄 AFP=연합뉴스

판매 수량은 전년과 비교하여 수입 닭고기는 26.4%, 수입 돼지고기는 5.6%가 각각 줄어 들었다. 소매점에서는 일본산 가격이 수입물과 별 차이가 없어 안심할 수 있는 일본산을 선택하는 소비자가 많다고 보고 있다.

전국 주요산지 슈퍼 13개 점포를 대상으로 계산대를 통과한 1,000인당 식육의 구매 수량을 집계했다.

동경도내의 어느 대형 슈퍼에서는 돼지고기 시세가 침체하고 있는 관계로 일본산 돼지고기가 팔기 쉬워져 수입 돼지고기 취급을 작년의 절반으로 줄였다. 또한, 닭과 돼지고기는 전단지 특매 광고 횟수를 늘려 손님들의 눈을 끌고 있다.

이 슈퍼에서는 닭다리살 100g당 소매 가격은 85~88엔으로 작년의 98엔보다 10엔 정도 싸다. 돼지고기는 작년 118엔이었던 것이 올해는 30% 쯤 88엔이다. 햄·소세지 등을 포함한 정육 관련 단가는 작년대비 평균 96~97%로 설정하고 있다고 한다.

- 일본농업신문

### 10월 닭고기 수입량 감소

농축산업진흥기구는 지난 11월 11일 슈퍼의 10월 식육소매점 동향(POS정보)을 정리한 것을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육시세의 침체로 수입물과의 가격차가 줄어들어 일본산에 힘을 쏟고 있는 슈퍼가 많아졌다.



## 미국

### 적색육·가공육 과다 섭취 전립선암 위험

쇠고기와 돼지고기 같은 적색육과 베이컨,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지나치게 섭취할 경우 전립선암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의 라시미 신하 박사는 적색육과 적색육을 이용한 가공육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전립선암 위험이 커지며 특히 예후가 나쁜 진행성 전립선암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신하 박사는 50세에서 71세의 남성 17만 5,343명을 대상으로 어떤 육류를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조리해서 먹는지를 조사해 9년 동안 지켜본 결과, 적색육과 가공육 섭취량 상위 20% 그룹이 하위 20% 그룹에 비해 전립선암 발생률이 평균 12%, 진행성 전립선암 발생률은 30% 각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특히 적색육을 고온으로 석쇠에 굽거나 바비큐해 먹는 것이 전립선암 위험을 높이며 닭고기 같은 백색육과 백색육으로 만든 가공육은 전립선암 위험과 연관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연구 결과는 의학전문지 '역학 저널' 최신호에 발표됐다.

- YTN

### 중국산 가금류 수입제한 완화

미국과 중국이 농업과 기술, 여행 등에 대한 무역제재 완화에 합의했다고 지난 10월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양국은 이날 중국 항저우에서 미·중 통상 무역위원회(JCCT) 첫 회담을 가졌으며, 특히

농업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첫 회담을 끝낸 뒤 "양국이 균형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견고한 진보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첫날 회담에서 가장 큰 성과는 농업분야로 평가된다.

우선 중국은 신종플루 발병 이후인 지난 5월부터 금지했던 미국산 돼지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미국산 돼지고기의 대(對) 중국 수출규모는 빠르게 증가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5억6,000만 달러 규모로 증가한 바 있다.

반면 미국은 6년간 금지해 오던 중국산 가금류 수입중단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 이데일리

### 곡물 수확량 작년과 비슷한 수준

미국에서는 올해 늦은 강우로 인해 곡물 수확량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곡물 가격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농무부는 그 정도가 미약할 것으로 수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봄밀 생산량은 9월 전망에서 1% 정도 감소, 듀럼밀은 1% 감소할 것이나 모든 종류의 총 밀 생산량은 22억2천만 부셸로 지난해와 변동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옌트, 보리, 옥수수, 콩의 전망치도 지난 9월 보고서에서 소폭 상이할 것으로 발표되

었다. 이번 10월 보고서는 올해 늦은 강우로 인해 농무부가 다시 수정 작성한 것이다.

올 가을 밀 가격은 풍부한 수확량과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 경기침체로 인한 국제 수요하락에 의해 소폭 하락했다. 옥수수도 가격이 소폭 하락했으며 10월 수확량 전망은 지난 9월 전망보다 1% 상승한 것이며 작년보다 높은 수치이다.

- 뉴욕aT센터

## 미국 소비자, 충동구매가 사라졌다

빠를 바른 포장 닭과 선글라스 그리고 타이즈(tights). 금융위기로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리스트에서 희생된 목록이다.

식료품 가게를 찾는 미국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기만족 위주의 충동구매가 사라지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이 푹 떨어지는 생필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미국 소비자들의 구매 행태가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것.

지난 11월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카탈리나마케팅이 2,500만명의 상점 충성고객들의 카드구매 내역을 조사한 결과, 지난 3분기에 통째로 냉동된 닭고기가 6,500만 달러 여치 소비됐다. 대신 뼈가 없는 냉동포장육 판매는 5,000만 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안경 구매 역시 43%가 급감했고 여성들이 구매하는 타이즈 매출도 29%나 줄었다.

미국 남성들 역시 과거 '샤프(sharp)' 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미용실을 자주 찾았지만 이제는 직접 머리 손질을 하기 시작하면서 식료품점과 약국에서의 헤어케어 관련 제품 구매가 28%나 뛰었다.

말라 톰슨 카탈리나마케팅 부사장은 "과거에는 즉각적인 자기만족을 추구했지만 지금은 구매 목록을 작성하고 덜 충동적인 구매를 한다"며 "쇼핑 행태의 변화는 새로운 구매 습관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재정적, 심리적으로 복잡해진 소비자들의 심경은 애완견이나 고양이들이 본의 아니게 다이어트까지 하게 만들었다. 예전에는 조리된 애완동물 음식을 스스럼없이 구매했다면 이제는 스낵 형태의 사료만 먹이는 소비자들이 많아진 것.

이밖에 외식하는 횡수도 눈에 띄게 줄면서 아이스크림 케이크의 매출은 70% 가까이 뛰었다. 아이들의 생일잔치를 밖이 아닌 집에서 하기 때문. 집에서 TV를 보면서 저녁식사 대용으로 떼울 수 있는 팝콘 구매도 55% 늘었고, 소시지 정식 판매도 27% 증가했다.

다만, 이런 와중에 일부 미국인들은 여전히 건강만큼 신경쓰고 있다. 팝콘과 소시지 판매가 늘긴 했지만 프로테인(단백질) 스무디나 비타민 음료 등 건강음료 판매역시 67%가 늘었다. 

- 이데일리